

# 충남, 관광 명소를 가다



사비길



홍성 죽도



공남지



금강하굿둑 자전거길

빼어난 자연과 경관을 자랑하고,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곳을 찾아 휴식과 힐링의 여행 명소로 소개하고자 한다. 충청도 내 곳곳의 여행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단위 소그룹 형태의 여행 취향에 맞는 계절별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.

### 홍성 죽도(죽도 둘레길)

해양 치유의 섬 죽도는 천수만에 있는 작고 아름다운 섬으로, 낭만적인 분위기를 가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잘 보존돼 있다. 싱싱한 해산물을 맛보고 갯벌 체험을 할 수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는 소중한 추억거리와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한다.

쉬기 좋은 섬으로 선정된 죽도는 섬 전체를 뒤덮은 푸른 대나무 숲

길을 걸으며 코로나19와 무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의 안식처가 된다. 해안선을 따라 마련된 전망대와 조망 쉼터에서 천수만을 배경으로 둘레길을 따라 걸으며 숲과 바다의 풍광을 즐길 수 있고, 해돋이와 해넘이를 모두 감상할 수 있다.

### 부여 사비길

사비길은 백제 사비도성이었던 부여 시가지를 관통하는 길로 백제 왕궁터, 낙화암과 고란사 등 부소산성, 서동공원(공남지), 정림사지 구드래일원 등 현존하는 백제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도보 역사 문화 길이다.

여러 갈래의 숲길 중 사비길에서 만나는 태자골 숲길은 단풍 터널이

환상적이다. 부여 사비길 코스 전체거리는 28km로 백마강길보다 더 길다. 사비길은 부여 세계유산을 다 볼 수 있는 코스로, 현대사를 대표하는 민족시인 신동엽 생가, 공남지, 능산리사지, 국립부여박물관 등을 볼 수 있다.

### 태안 솔향기길

솔향기길은 천혜의 해안경관을 선사해 최근 증가하는 도보여행에 제격이다. 피톤치드 그윽한 솔향과 바다내음, 숲 소리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자연에 흠뻑 매료돼 여행길을 탐방할 수 있다. 도보 중심의 다섯 가지 코스로 구성돼 있다.

태안 솔향기길은 울창한 해송의 숲에서 뿜어내는 솔내음이 짙고

길 위에는 솔잎이 수북이 쌓여 있다. 해안선을 따라 기암괴석과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거친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해변길을 걷는 것도 좋다.

### 금강하굿둑 자전거길

금강 자전거길은 금강하굿둑과 대청댐을 잇는다. 드넓은 금강변으로 펼쳐진 갈대와 조용한 자전거 전용길은 이곳이 자전거 천국임을 여실히 보여준다. 금강하굿둑에서 신성리 갈대밭까지 이어지는 이 길은 금강변 풍경을 감상하면서 달릴 수 있어 많은 라이더가 즐겨 찾는다.

길은 대체로 평탄하고 중간중간 도시를 지나가기 때문에 초보자도 큰 부담 없이 여행하기에 좋다. 자전거는 무료로 빌릴 수 있다. ❶